

# 해남군 물김위판액 1000억 돌파... '역대 최대' 전망



해남군의 2024년산 물김위판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물김 위판액은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한 105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3년산 물김 전체 위판액인 722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로, 위판종료일인 4월말까지 1200억원 가량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위판 종료하는 4월말까지 1200억 예상 마른김 수출 증가로 물김 가격 상승해

해남군은 2024년산 김양식을 위해 8237ha 면적에 16만 4740여채를 시설했으며, 지난해 10월 19일 화산 구성위판장을 시작으로 물김 위판을 실시하고 했다.

현재까지 생산량은 5만 7360t으로 4월말까지 최대 6만 5000t의 물김을 생산할 것으로 보인다. 물김위판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마른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내 김 재고 물량이 감소되어 원재료인 물김의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의 경우도 전년 대비 양식면적이 줄고, 생산량도 감소했으나 생산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올해는 안정적인 해황으로 평균 수온이 지속적으로 유지돼 업체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초기 채묘시기에 갯병 발생이 적어 고품

질의 물김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해남군은 김 양식 어업인 소득증대와 고품질의 김 생산을 위해 인증 부표 보급과 김 어망 및 김 육상채묘 지원 등 김 양식 관련 16종 사업에 1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돼 50억원의 예산을 확보, 유기인증 친환경 지주식 김의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김 양식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2024년 생산이 종료된 어장 내 김 양식시설 물이 조기 철거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 진도군, 2024 공직자 회계 직무 교육 실시

진도군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회계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자 교육과 전임자를 통해 간단히 익힐 수만 있었던 어려운 회계업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하는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 사진 등을 활용해 알기 쉬운 교육으로 직원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해 일반지출과 계약업무 등 실제 담당 주무관들이 교육을 진행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들은 직원들과 다양한 사례를 통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군은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업무시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업무 분야에 맞춰 첫날은 일반지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둘째 날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 등의 계약업무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기획홍보실의 모 주무관은 "일반지출과 계약업무의 부족한 경험으로 경리팀 직원들이나 주위 직원들에게 자주 물어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딱딱한 이론 교육이 아닌 실무 위주 업무연찬의 기회가 종종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경리팀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정기적인 인사이동과 어려운 지출·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 장흥 유치면, 원목 표고버섯 종균 접종 '활기'

표고버섯 전국 최대 산지로 손꼽히는 장흥군 유치면이 부쩍 본격적인 원목표고 종균 접종 시기를 맞아 종균 접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유치면은 장흥댐 상류에 위치하고 공기가 맑은 청정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은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에게 진상되던 특산물로 맛과 향, 식감이 다른 지역 표고버섯보다 월등히 우수하다.

김달중 표고작목회장은 "기후 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명품 표고버섯 생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강진군, 석문공원 관광객 맞이 준비 시작

### 자주빛 맥문동 5만본 식재

강진군은 지난 2일, 석문공원 내부에 맥문동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은 강진군 산림과 직원을 비롯한 도암면 주민들과 사회단체장, 김창주 군의원, 유경숙 부의장 및 최해진 여사가 함께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가자들은 맥문동 총 5만본을 식재해 석문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

맥문동은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30~50cm이며, 연한 자주색의 꽃이 5월~8월에 핀다. 맥문동의 꽃

말은 '검손', '인내', '기쁨의 연속' 등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석문공원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어 보람을 느꼈고, 주민들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원 군수는 "아름다운 석문공원을 가꾸기 위해 꽃식재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구석구석 아름다운 강진의 모습을 다가가, 더 많은 분들이 강진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 신지명사십리 새단장 한다...관광지 재생사업 공모 선정

### 10억원 확보...미디어아트쇼·자연 속 예술공간 조성

서남해안의 대표적 관광지인 완도 신지명사십리가 새단장한다.

완도군은 4일 전남도 주관 '2024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신지명사십리가 최종 선정돼 도비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지명사십리는 지난 2007년 11월 전남도 관광진흥지구로 승인 받았으며 깨끗한 바다와 고운 모래, 수려한 경관 등을 갖춘 여름철 대표 휴양지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했다.

완도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노후 관광시설을 보수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폭넓게 도입할 계획이다.

도비와 군비 등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신지명사십리 주 출입구 인근에 바다 조망이 가능한 포토 스팟을 설치하고 안전펜스·관광 안내판 교체, 스마트 태양광 LED 종합 안내판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완도 해양치유센터의 테크 로드에도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해양 힐링'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쇼를 진행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치유센터에는 '자연 속 예술공간'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편의시설 표지판, 점자 안내판, 점자 블록 설치 등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관광지 재생사업과 전



남형 지역성장 전략 사업인 '힐링해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신지명사십리 관광에 새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